

예수를 교회로부터 구출하라  
새길교회 독서 토론, 07/18/2015 정창수

제 2장 믿음에서 삶의 방식으로(Faith as being, not belief)

주제:

1. 예수를 구세주가 아니라 선생으로 본다(1장, Jesus the teacher, not the savior)면 그 예수가 가르쳤던 신앙의 본질은 무엇인가?
2. 예수가 보여주었던 신앙의 근원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의 변화와 이를 삶의 변화로, 또한 사회 변혁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한 A new way of being(57)을 실현하는 것이다.

문제:

1. 우리시대의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를 따르는 것에서 예수를 예배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것은 신앙과 믿음을 분리해야 할 필요성을 키운다.(57)
2. 현재 우리에게 신앙을 갖는 것은 교회가 가르쳐 왔던 것을 믿는 것이지 예수가 제자들에게 하나님에 관해 가르쳐왔던 것들이 신앙하는 것이 아니게 되었다(59)
3. 저자는 기존의 보수 신앙의 정의를 마커스 보그의 기독교의 심장에서 빌어온다. 지적 동의만으로 크리스천들은 신앙을 이뤘다고 생각한다. 이마저도 올바른 지적 동의를 이루지 않는 경우도 많음.
4. 만일 교회가 신앙이 믿는 방식이 아니라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것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심장으로서, 성육신으로서 오신 예수 복음의 이야기는 의미가 축소, 혹은 사라질 수도 있다고 저자는 경고한다.(61)
5. 팔레스타인에서 일어난 예수 운동은 기독교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그가 가르친 신앙의 길,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가르침에 대한 대중들의 반응에 관한 기록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의 메신저 역할을 메세지 자체가 되게 만들어 그의 지혜를 잃게하고 인류 구원의 해법으로 뒤바꾸어 버린다.(72)
6. 성육신의 메세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의 삶속에서 육신을 입었다는 것이다.(61) 그러므로 그가 생각하고 실천했던 삶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질수 있게 한다. 이로서 성육신의 의미는 그로인해 천국문(하나님 나라의 실현)이 당신앞에 열렸을때 주저 없이 들어가는 것이 신앙이지 그것의 의미나 역할, 방식 그리고 기준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62)

<참고>

신앙의 4가지 의미(기독교의 심장, 마커스보그)

1. 아센수스, 지적 동의 (faith as assensus)
  - a. 교리나 신조 등에 대한 동의가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 반대어는 '의심' 혹은 '불신앙'이다.
2. 피두시아,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 (faith as fiducia)
  - a. 신뢰는 '철저한 말김'이다. 불안과 공포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부력(浮力)을 신뢰하는 것"(55)이 곧 신뢰이다. 반대어는 '불신(mistrust)'이지만 이것은 늘 '걱정'과 '염려'로 나타난다.
3. 피델리타스,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충성 (faith as fidelitas)

- a. 철저하게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는 것이다. 이런 신앙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하는 책임적 신앙으로 표현된다. 반대어는 '배신(Infidelity)'이고 성서의 언어로 말하자면 '우상숭배'이다.
- 4. 비시오, 세상을 은혜로 바라보는 방식 (faith as visio)
  - a.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관련된 것이다. 믿음의 사람들은 인생의 궁극적인 무대를 적대적이거나 무관심한 것으로 보기보다는 은혜가 넘치는 것으로 본다

논점:

1. 말씀이 육신이 된 것(요1:1)은 하나님의 지혜가 육신이 되어 세상을 변혁하기 위함이다.(61)
2. 유대인 예수를 이해해야 예수가 이야기한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수 있다. 역사적 예수는 전통을 공부하고 따르며 자라났다(67) 세례요한의 가르침과 예수의 가르침은 세례 요한의 죽음으로 인한 예수의 가치관의 변화로 이어진다. (70)
3. 우리의 신앙고백은 예수의 삶의 지혜에 있으며 그 지혜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데 있다. 따라서 나중에 전승된 성경의 기록이 예수의 지혜와 충돌될 때는 그의 지혜를 택하여야 하며 그러기 위해 최초의 예수 기록으로 돌아가야 한다.(72)
4. 인류 속죄: 선재하시는 예수와 그의 사람들에 대한 핏값과 이로 인한 속죄의 인과 관계도 예수의 생각은 아니었다. 하나님이 중심이지 그리스도(savior)가 중심이 아니다!(75) 하나님 중심적이란 말은 세상의 체제와 방식을 버리고 죽음과 부활의 은유를 아는 것이다. 이것은 옛 자아에 대해 죽고 새로운 자아로 다시 태어나는 끊임없는 과정이다(76). 대중들은 조용한 절망의 삶을 살아간다. 체념이라 부르는 것은 확인된 절망이다.(81) - 인습(자본주의, 사회 체제, 교회)에 대해 도전하는 것은 절망적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것을 '상식', '모두가 그냥 참되다고 알고 있는 것'이라 부른다.
5. 이 체제들 안에서 우리는 자신들의 위치를 알아야 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기를 강요한다. 하나님은 그런 나에 대하여 명령하고 평가하는 기준이 되버린다. 이 모든 것의 기준은 나(me)이다.
6. 예수의 지혜는 권력의 토대를 무너뜨렸고 전문 종교인의 목적을 파괴했으며, 가난한 사람들을 흥분하게 만들었고 힘없는 자들을 대담하게 만들어 당시 로마 제국이 점령하여 한 맺힌 사람들의 관심을 삽시간에 끌어냈다.(86)

평가

1. 저자가 믿음의 대상으로서 예수에 대해 만들어진 껍데기를 벗겨 버리는데 집중하였다면 그 예수가 실제로 어떤 삶을 살았고 그것이 왜,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냈는가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은 없다. 역사적 인간 예수를 알게 되었다면 우리의 다음 실천은 무엇일까? 그럼 도대체 무엇이 예수가 말했던 삶인가?
2. 예수의 시대적 사명이 하나님나라의 선포였다면 이 시대에는 그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 것일까? 그것은 어떤 선포인가? 선포로 끝나는 것인가? 개개인의 변화를 요구하여 사회를 변혁하자는 누룩이론인가? 그것이 과연 예수님 시대나 이시대에 가능하기나한 이야기인가? 시민 운동? 혁명 운동? 민주당 당원? 환경 운동? 교회변혁 운동? 나눔 실천 운동?
3. 개인 신앙의 문제가 어떻게 사회변혁의 과제로 이동할 수 있는가? 예수가 이 세상이 끝도 없는 타락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에 대한 순응에 발판을 둔 치료가 아니라 혁명적인 변혁을 요구한다면 어떤 혁명적인 사회 변혁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가?
4. 신앙이 이렇게 보편적 상식과 삶의 방식을 따르는 것이라면 과연 교회의 역할은 무엇인가?